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 정 질 문

신 성 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신성철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세월호 사태 1주기를 맞아 가슴에 가족을 담은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며, 지난 1년간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제종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1년은 세월호 사태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활기찬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는 안산시가 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7만 안산시민을 위해 주,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종길 시장님!

대부도가 지역구인 본 의원은 보물섬 대부도를 만들기 위해 전담기구인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신설하고 주1회 이상 숙박을 하며 각종 현안사항 해결과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진정 대부도가 보물섬이 되기 위한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안산시는 전담기구를 지난 1월1일에 출범하고 대부도와 시화호를 잇는 뱃길과 박물관 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부도를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부도는 각종 규제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도하게 계획된 황금로 주간선도로에 관한 건입니다.

대부 황금로 대로2-15호선은 지난 2001년에 대부동 주간선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M로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30M 도로 확장 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10M~20M의 불규칙한 도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훨씬 넘는 2001년의 도로결정이 현재의 대부도 현실과 동 떨어져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는 2차선을 확장하는 데만 약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어려운 안산시의 재정 상황 등으로 사업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현재까지 왔겠지만 넓은 시야의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 한다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해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대부 황금로의 시점부인 제방도로와 종점부인 화성시 구간의 도로 접합구간의 도로폭이 우리시에서 계획도 도로시계획도로 폭보다 좁아 도로선형이 맞지 않는데, 우리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폭만 과도하게 30M로 계획하고 이를 고집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도로 폭을 25M로 축소하여 현재 왕복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건설 한다면 커다란 예산 절감 효과와 사업 시기도 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도로 계획을 30M 에서 25M로 축소한다면 이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우려는 있겠지만 현재 건설과에서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추진중인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의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북동과 남동 지역의 교통분산 효과가 커지므로 착공조차 못하는 현재의 30M의 도로폭 유지를 고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안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부황금로의 교통 흐름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도로폭을 30M에서 25M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후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의 질문은 대부도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은 현재 7천7백 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대부도를 2030년까지 인구 4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해양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의 대부도가 현재 주민이 6배 이상 증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대부도의 현실을 보면 시장님의 말씀이 단지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기반시설이 함께 해야 함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가가 증시되는 요즘 세태를 보면 도시 공원의 중요성을 본의원이 여기서 밝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시장님도 숲의 도시 안산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이에 걸맞게 우리시 관내 공원조성현황을 보면 근린공원의 경우 상록구 99%, 단원구 89%가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조성중이지만, 대부도의 경우 집행률이 13%로 저조한 실정이고,

특히,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도 상록구 95%, 단원구 99%로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조성중이나, 대부도 지역의 경우 어린이공원 12개소 계획 중 지금까지 한 곳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단원구와 비슷한 면적의 대부도에 단 한곳의 어린이 공원조차 없는 대부도에서 어느 누가 정착하여 아이를 낳고 거주하고 싶겠습니까? 시장님이 밝힌 인구 4만명이 거주하는 대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 4 -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5-05-14 14:06

안산시 다른 지역과 같은 여건의 환경을 조성하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기준에 대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3월에 진도군 조도면 주민을 초청행사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예비비 32,290천원을 사용 했습니다.

시정질문 첫 머리에 밝힌 것처럼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 본의원은 누구보다 세월호 사태를 가슴 아파하고 있지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원으로 안산시의 이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태 당시 우리 아이들을 도와 준 조도면 주민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본 사업이 과연 본예산 사업이나, 추경3차 편성에 예측하지 못해 예비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자치행정과에서는 조도면 어업시기를 고려하여 3월중에 추진하여 4월 추경에 반영 할 수 없어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먼저 본 사업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세월호 전담부서인

- 5 -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5-05-14 14:06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에서는 추모행사비 등으로 110,000천원과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캠프 등으로 40,000천원 등 행사운영비로 150,000천원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본예산 사업으로 충분히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당초 계획한 사업은 있었겠지만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시기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의회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 한 후에 조도면 주민 초청 행사를 추진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반영 할 수 있었을 사항을 무리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집행부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권한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를 지적해야 할 감사부서에서는 일상감사 결과 연회비와 환송연 경비만 업무추진비로 사용 할 것을 지적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감사해야 할 감사 기능이 숲이 아닌 나무만 본 것에 대한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권한을 회피하는 예비비 사용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비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할 것을 시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시화 간척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시의 능동적인 행정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산시는 간척지와 관련해서 2014년 3월 대송단지 농업적 토지이용계획 최종보고회를 통해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간척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안산시는 아니지만 안산시가 간척지 활용에 대한 단계적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간척지가 안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한축이라고 생각하는 해당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안산시의 미온적인 행정에 대한 아쉬움과 간척지가 안산시의 미래를 위해 숨겨진 보물과 같기에 안산시의 시화 간척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시의 능동적인 행정기구 구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시장일 경우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을 추진 할 경우 임대나 매각을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135ha에 달하는 시화간척지라는 넓은 도화지가 안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하면 안산의 미래를 위한 색으로 채워 나갈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업무 추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지만 수동적으로 해당기관의 방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이룰 바탕으로 업무 추진을 한다면 간척지라는 묻혀 있는 보물이 그 모습을 들어 내어 안산시의 관광정책과 어울려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중요하고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로 구성 된 전담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에 일부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으로 신설 된 대부생태숲계는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대부도 관련 유지관리 업무만을 맡게는 80%, 적게는 15% 이상을 이관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생태숲계의 상당수 업무처리 비중이 단속업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일 처리 업무에 대해 단원구청 등 해당 부서와 분리하여 중복적 조직 운영을 지양하고 개선할 것과 생태습지, 테마파크, 농지계획 등 약 1,100만평의 시화 간척지를 종합 관리하고 이에 맞춰 관계 정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업무추진을 통해 안산의 관광전략에 맞는 행정을 적극 추진할 간척지 기획관리 전담팀을 대부해양관광본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안산시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는 2015년 기준으로 안산YMCA에 신길샛별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을 한양대 글로벌 다문화연구원에 다문화도서관 등 2개 도서관을 위탁하고 약 사억 육천삼백여 만원을 위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 받은 공립작은도서관 정산검사결과와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탁자의 자부담은 전무한 실정이고 시의 위탁비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그리고 관리비로 사용되고 정작 주민에게 사용되어야 할 사업비는 전체 위탁비의 1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2014년도 약 삼억 삼천만원의 위탁예산이 2015년에는 약 사억 육천만으로 일억 삼천만으로 증액되었지만, 안산YMCA 등 공립작은도서관 수탁자의 자부담 부분을 살펴보면 2013년도는 자부담이 없었고, 2014년도는 이천 이백여만원에 불과하여 2015년도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위탁사업비의 대부분이 앞서 언급했지만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2015년 약 구천 삼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위탁비를 받는 석수골도서관의 경우 자부담은 없고 시의 위탁비 구천 삼백만원 중 관장과 직원 인건비와 사대보험비용으로 약 육천 육백만원이 편성되고 약 일천 오백만원이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작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 약 일천 일백만원에 불과 합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아주 낮은 구조의 예산편성은 석수골도서관만이 아닌 안산시 공립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의 편성구조이고 2015년 한해만의 편성 구조가 아니었고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위탁도서관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간위탁은 직영에 비해 단지 비용절감의 이유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효과를 위한 행정행위지만 현재 안산시의 작은도서관위탁운영 행정을 살펴보면 민간위탁도서관의 운영프로그램이나 투입되는 예산규모와 시에는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운영과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는 도서관의 양적 성장을 위한 위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은 도서관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며, 무엇이 우리 시민에게 더 필요한지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안산시는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다는 명분 아래 도서관의 양적 확장에만 주력하여 작은도서관과 도서관의 직제 규모 확장에만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만, 이제 양정성장 보다 넓은 시야로 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안산시 도서관 행정은 민간위탁이라는 양적성장을 지양하고 디지털 및 모바일 이용환경에 부합하는 스마트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발맞춰 미래 창조형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도서관서비스 시스템 마련과 양적으로 늘어난 도서관의 전산 및 통신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전산시스템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양적 성장에 집중했던 도서관 행정의 지양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사업의 효율성 확보방안 강구 그리고 미래 창조형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마련을 건의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신 성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과도하게 계획된 대부황금로 주간선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대부황금로의 도시계획도로폭을 30M에서 25M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후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
- 대부황금로는 2001.4.28일 대부동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수립 시 경기도 고시 제 2001-64호로 도로연장 15Km, 도로폭 30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 본 노선은 시흥시~대부도~화성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서 향후 대부도 관광산업 개발 및 화성시 송산그리시티 개발에 따른 레저·관광 활성화 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래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확장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부황금로의 교통수요량과 개발여건, 자전거도로망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폭을 6차선에서

4차로로 계획 및 보도, 자전거도로 등 설치시 도로폭 25M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부황금로 도로폭 축소(30M→25M) 및 완충 녹지 조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지방도이므로 경기도 협의 절차 및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도 공원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대부도 공원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

- 우리시의 공원 현황은 총 280개소로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은 59개소입니다. 이중 미 조성된 대부동 지역의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3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 소공원 5개소입니다.
- 대부동 지역의 공원은 94년 용진군에서 편입이후 2001년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공원 지정이 부적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도시자연공원인 흥성공원 및

구봉2공원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청취 등 공람·공고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중 폐지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도시자연공원인 구봉1공원에 대하여는 금년 중 실시계획 완료 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용지보상 후 년차적으로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 근린공원 2개소 및 소공원 5개소에 대하여는 조성계획 용역 수립 중으로 금년도 용역이 완료하는 대로 년차별 보상계획을 세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어린이공원 12개소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 30억 정도 소요되는 4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계속비 사업으로 2016년부터 년차별로 조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대부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 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예측 가능한 사업의 예비비 사용과 관련 예비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먼저 지난 3월에 예비비로 추진한 진도군 조도면 주민 초청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월호 사고당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중인 세월호 탑승객 구조에 도움을 주신 조도면 주민 초청.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으며,
- 본예산에 미편성한 사유로는 작년말까지 사고로 인해 유가족, 시민들이 많은 슬픔에 젖어 있었던 상황에서 주민 초청행사를 거론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행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 조도면 어업시기를 고려하여 추경예산 수립전인 3월중 추진이 불가피하여 추진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 현재 예비비 집행사유 발생 시 의회 해당 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통해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 향후 법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 예비비 집행을 최소화 하는 등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 간척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능동적인 행정조직 구성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신설된 대부생태숲계는 유지·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처리하고 있고, 특히 업무처리 비중이 단속 업무에 그치고 있음.

☞ 단원구청과의 중복적 조직 운영 지양 및 개선 필요

○ 생태습지, 테마파크, 농지계획 등 시화간척지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추진할 시화 간척지 기획관리 전담팀 설치를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 먼저, 구청에서 담당하던 대부도지역 관련 업무를 대부해양관광본부로 이관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장 자원이 풍부한 대부도를 자연, 숲, 바다가 어우러지는 미래 휴양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대부해양관광본부」를 개청하였습니다.

○ 분산되어 있던 대부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막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가로청소, 위생, 불법 광고물 정비 등 환경개선 업무를 대부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대부환경을 조성하여 대부도를 명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함은 물론,
-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통해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등 대부도 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를 대부해양관광본부로 이관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대부생태숲제를 신설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숲’과 ‘바다’와 같은 자연 생태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성장 발전을 이루는 「블루 이코노미」가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숲’과 ‘바다’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안산시에 시사해주는 바가 큼니다.
- 대부도 산림면적은 14.98km²(453만평)로 대부도 전체 면적 41.98km²(1,269만평)의 35.7%를, 그리고 안산시 전체 산림면적 63.84km²(1,931만평)의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숲” 과 같은 지속 가능한 최대의 관광 자원을 통해 미래 기업을 창조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으려면, 숲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여 “대부생태숲제” 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안산시의 경우 무단형질변경, 무단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대다수가 대부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산림훼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인근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난개발의 가장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산림 훼손, 형질 변경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심도 있고 책임성 있는 대응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이관하여 대부산업체의 기존 산지전용 협의 업무와 산림 및 공원 관리 업무를 대부생태숲제에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 단속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감안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위주가 아닌 제도·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대부생태숲제에서는 대부도지역 내 공원 운영·관리 계획 수립,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유지·관리, 시화방수제 도로 내 중앙 수변 유지·관리,
- 산지전용 허가, 산지 복구설계 및 준공검사,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토사·토석 채취허가 및 복구 등 대부도 지역의 산지 보존·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 작년 한 해 산지전용 처리 건이 547건인데 비해 불법 단속 건은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산지 불법행위 등 단속 업무가 대부생태숲제의 주된 업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화 간척지 기획·관리 전담팀 구성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안산시에서는 시화 간척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녹색의 전원도시를 향한 고부가 생태농업의 육성'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 대송단지에 관광·지원시설, 원예농업 등 5개 용도의 단제별·용도별 토지이용을 구상하여 ‘바다향기 테마파크 조성’, ‘포도 및 와인산업 육성’ 등 6개의 중점 추진 분야를 이용계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간척지 임시규정에 관한 지침」에 의거 2016년 6월 까지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시화 간척지 일부에 단년생, 다년생 작물만을 재배하고 있으며, 대송단지에 대한 관광휴양사업이나 추가 시설물 설치 등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부지 활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진을 위한 매각 특례 규정이 있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절차가 필수적인데,
-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에 의거 향후 전국의 12개 지구 간척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아닌 임대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들로 볼 때 대송단지 사업기한인 2018년까지는 시화 간척지에 대해 안산시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나
- 상반기 중 영농과 관련한 시설원에 등 주민의 요구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사장)와 직접 협의한 후 결과에 따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화 간척지 기획·관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 조직 신설 전까지는 대송단지에 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미래전략관에서 담당하게 하고, 바다향기 테마파크의 관리·운영은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 그리고 대부도 농민의 소득 증가 사업인 시설원예나 수도작 외 타 작물의 다양성 관련 업무에 대한 기관 간 협의는 생명산업과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개별적 업무에 따라 정책방향에 맞춰 협업체제로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시화간척지 임시사용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영농법인의 가정작이나 작물재배 다양화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신 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작은도서관 질적 성장을 위해 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미래 창조형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서관시스템 마련과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 우리시는 지식정보 소외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 공공도서관 11개소, 작은도서관 16개소 총 27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대부도서관을 비롯한 안산동, 반월동 도서관 등을 준공 또는 건립할 예정으로 있어 1동 1도서관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업 마무리 후에는 도서관 신축은 지양하고 인력 및 도서관 자료 확충, 서비스 효율화를 통해 질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성장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업무의 연계와 도서관 간의 소통, 자료 공유를 고려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도서관의 양적 성장에 비해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운영 인력 확보가 어려워, 민간의 경험과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작은도서관 6개소를 비영리 기관(단체)에 위탁하고 위탁사업비를 시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작은 도서관은 규모가 협소하여 도서의 대출, 도서자료 제공, 상호대차의 업무 등이 대부분이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독서 프로그램이나 시민참여 도서 행사 등을 추진하기 어려워, 위탁사업비중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업비 중에서도 도서·물품 등 자산은 시에서 직접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비중의 위탁사업비는 인건비에 대한 세부 분석과 사업의 확대를 검토하여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이 되도록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작은 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인력을 확보하여 직영을 하도록 우선 추진하고, 인력확보가 어려울 경우 위탁을 추진하되, 위탁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철저한 운영 평가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성과가 미흡한 수탁기관은 향후 수탁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 기존 비영리법인·단체로 제한되어 있는 공모자격을 도서관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익법인, 단체, 문화재단 등으로 확대하며, 자부담 여부도 공모자격에 부여하는 등 위수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미래창조형 도서관지식정보강화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27개 도서관에서는 미래창조형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해 도서관 리업무시스템을 도입, 소장도서 검색, 도서예약,

희망도서신청 및 상호대차 서비스, 전자도서관 (e-book, 오디오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내년에는 37블럭 영어·미디어전문도서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 금년 10월 개관예정인 대부도서관에도 바다, 섬, 새 등 특화된 전문 도서 자료를 집중 구입 확충하는 등 차별화되고 특화된 도서관과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 이외에도, 변화하는 지식정보환경에 맞추어, 도서관 외에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미래창조형 정보서비스환경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신 성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